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Temperament and Playfulness of Young Children on Their Social Competence

조송림(Jo, Song-Lim)¹, 문혁준(Moon, Hyuk-Jun)^{2*}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and to promote the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of the age group. The study gathered data from 21 childcare teachers and 255 mothers of young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in Incheon.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from the participa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layfulness and social competence varied by the age and gender of the young children. Boys outperformed their female counterparts in the sub-factors of playfulness such as physical spontaneity and sense of humor. Age caus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factors including physical spontaneity, soci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manifest joy and sense of humor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s among social competence, temperament and playfulness.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overall social competence and activity; social compet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hyness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ub-variables of children's playfulness. Lastly, emotionality, shyness, physic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and sense of humor were variables that had serious effects on the overall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기질(temperament), 놀이성(playfulness)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그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어간다. 현대 사회의 특성 중 하나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영유아의 영유아 교육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졌으며, 또 다른 특성 중 하나인 저출산에 따른 형제 수 감소로 인하여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길어지면서 타인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Lee, 2010).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특성 속에서 사회적 능력은 유아가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Jeong, 2011).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며, 효과적으로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적응능력을 의미하며(Choi & Kim, 2005), 유능한 사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Moon, Hyuk-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43Jibong-ro, Wonmi-go,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E-mai: mhyukj@catholic.ac.kr

회구성원으로 적응해 가는 능력(Kim, 200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며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Dodge, McClaskey, & Feldman, 1985). 따라서 유아에게 사회적 능력이란 유능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Noh, 2004).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Guralnick, 1990). 또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치원 및 학교 적응이나 또래간의 인기도, 앞으로의 사회생활 및 인성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Chen, Rubin, & Li, 1995).

유아는 만 2세부터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위가 증가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및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n & Munn, 1986). 즉, 유아기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중심성이 강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지만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유아기에는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isenberg-Berg & Hand, 1979). 이처럼 유아기는 본격적인 사회와의 접촉을 통하여 더욱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Le, 2011), 사회적 능력은 유아기 발달에 중요한 과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Eisenberg, Padada, & Liew, 2001). 즉,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은 이후 발달에 있어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Parke & Asher, 1987), 사회적 능력이 긍정적으로 발달한 유아는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Rhee, 2000) 놀이를 주도하며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 반면, 유아가 6세까지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되지 못할 경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낮은 수행 및 비행, 우울 등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Kim, 2006) 등 유아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 발달과정동안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Katz & McCellan, 1992). 이처럼 유아기에 획득한 사회적 능력은 성장한 이후에까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유아의 성은 사회적 능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선행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연구(An & Kim, 2008; Jeong, 2011; Lee, 1997; Lee, 2011; Lieberman, 1965)가 있는 반면,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인 방해성에서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Her & Lee, 2010)와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Cho, 2007; Kim & Moon, 2004; Lee, 2001)는 사회적 능력에는 성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회적 능력도 증가하며(Dunn & Munn, 1986), 연령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An과 Kim(2008)의 연구에서는 3세와 4세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세에서는 차이를 보임을 보고하여 연령에 따라 사회적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히고, 유아기가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반면, Jeong(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대한 하위 영역별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므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 요인 중 유아의 개인적 특성으로 기질이 강조되고 있다(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기질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지니게 되는 행동 특성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며, 사회정서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Lee, 1995).

뉴욕 중단연구를 통해 Thomas, Chess와 Birch(1968)는 유아의 기질이 선천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질을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유아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 이후의 행동장애와 상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질을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Won, 1990). 따라서 기질은 가정, 학교 등의 사회적 상황이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유능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사회적 능력을 예측해 주는 요소이며, 유아 개인의 기질에 대한 올바른 지각은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Chun(1993)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Lee(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수줍음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인 인기도/지도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활동 수준은 대인적응성과 부적 상관을, 수줍음은 사회적 참여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낮다는 연구(Choi, 2007; Kim & Lee, 2008; Lee & Moon, 2008)가 있는 반면, 유아의 활동성이 높

을 때 또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Hwang, 2009)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유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아 개인의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는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수줍음으로 나누고 이러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집단보다 유아의 사회관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유아기는 사회적 놀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환경과 맺게 되는 상호작용은 대부분 놀이처럼 이루어지게 된다(Woo, 2009).

Sutton-Smith(1971)는 유아에게 있어 놀이란 곧 일이고 작업이며, 놀이를 통하여 미래의 성인생활을 준비하고 역할 수행과 기능을 익히는 등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놀이를 통하여 최초로 획득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발달을 이루며(Choi & Kim, 2006), 차례 지키기, 협동하기, 나누기, 의사소통하기 등의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유아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 역할 한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이처럼 유아기의 놀이 경험은 인간의 인격형성 및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Kim, 2008),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게 된다(Bruner, 1972). 또한 유아들은 놀이 속에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형성시켜 준다(Jeong, 2011).

유아기 인간관계의 시작은 놀이로부터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놀이에 관한 연구에서 놀이가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명되고 있다(Lee, 2010).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정서 등을 표현하며 즐거움을 얻고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발달, 사회적 역할을 배우며 성장하게 된다. 즉,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과 잠재된 능력을 사용하며 성장하게 된다(O'Connor, 2001).

최근에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생각이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느냐 보다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성향으로 보고 있다(Barnett, 1991). 이

처럼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표현되며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놀이성으로, Lieberman(1965)은 유아의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아의 놀이성을 놀이를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행동적인 요소로 정의하여 놀이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Lee, 1997).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질과 놀이성 각각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기질과 놀이성이 함께 고려되어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최근 아동들이 집단 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위축되는 현상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능력의 초석이 되는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종합해보면, 사회적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 발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Kim, 2001), 유아기는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돕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를 둔 어머니 2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유아의 가정환경과 기질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해당학급의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69부(89.7%)를 회수하였고, 부모에게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대하여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교사평정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269부의 부모설문지와 교사설문지 중 누락 또는 이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5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성별은 남아 125명(49.0%), 여아 130명(51.0%)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유아의 연령은 5세 93명(36.5%), 6세 86명(33.7%), 7세 76명(29.8%)이었다.

부모 특성으로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36~40세가 113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65명(25.5%), 41세 이상 56명(22.0%), 30세 이하 15명(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31~35세 121명(47.5%), 36~40세 92명(36.1%), 41세 이상 27명(10.6%), 30세 이하 12명(4.8%) 순이었다.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08명(42.4%), 전문대학 졸업 71명(27.8%), 고졸 이하 62명(24.3%), 대학원 이상 12명(4.7%)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93명(36.5%), 고졸 이하 77명(30.2%), 대학교 졸업 76명(29.8%), 대학원 이상 4명(1.6%) 순이었다. 다음으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77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 미만 62명(24.3%), 500만원 이상 54명(21.2%), 200~300만원 미만 52명(20.4%), 200만원 미만 8명(3.1%)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uss와 Plomin(1986)이 개발한 유아용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척도를 수정·보완한 Park(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부모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6문항), 활동성(5문항), 사회성(4문항), 수줍음(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3문항, 수줍음 5문항으로 총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요인의 성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정서성에 관한 문항의 예로는 '잘 칭얼대고 운다.', 활동성에 관한 문항의 예로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활동적이다.', 사회성 문항의 예로는 '혼자 노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수줍음에 관한 문항의 예로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있다. 본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성 .78, 활동성 .74, 사회성 .72, 수줍음 .79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255)

	Item	Frequency	%
Sex	Boy	125	49.0
	Girl	130	51.0
Age	3 Years old	93	36.5
	4 Years old	86	33.7
	5 Years old	76	29.8
Father/ Mother's Age	Below 30 Years old	15/12	5.9/4.8
	31~35 Years old	65/121	25.5/47.5
	36~40 Years old	113/92	44.3/36.1
	Over 41 Years old	56/27	22.0/10.6
	Non-response	6/3	2.4/1.2
Father/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e	62/77	24.3/30.2
	College graduate	71/93	27.8/36.5
	University graduate	108/76	42.4/29.8
	Graduate school or above	12/4	4.7/1.6
	Non-response	2/5	0.8/2.0
Monthly Income	Below 2,000,000 Won	8	3.1
	2,000,000~3,000,000 Won	52	20.4
	3,000,000~4,000,000 Won	77	30.2
	4,000,000~5,000,000 Won	62	24.3
	Over 5,000,000 Won	54	21.2
	Non-response	2	8

2)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이 개발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Kim (1995)이 번역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6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감각(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신체적 자발성 3문항, 사회적 자발성 4문항, 인지적 자발성 6문항, 즐거움의 표현 5문항, 유머감각 5문항으로 총 2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체적 자발성 문항의 예로는 '놀이를 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인다.', 사회적 자발성 문항의 예로는 '다른 아이들과 협동적으로 놀이한다.', 인지적 자발성 문항의 예로는 '다른 아이들과 놀이할 때 주도적이다.', 즐거움의 표현 문항의 예로는 '놀이를 하는 동안 즐거워한다.', 유머감각 문항의 예로는 '다른 아이들과 우스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가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신체적 자발성 .84, 사회적 자발성 .88, 인지적 자발성 .72, 즐거움의 표현 .76, 유머감각 .80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oh와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 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Kindergarten)을 Seo(2005)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친구들과 서로 다투지 않고 대화를 지속한다.'가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유아의 기질을 살펴보면, 5점 척도로 측정한 유아 기질 중 정서성의 평균은 2.83점($SD=.69$), 활동성의 평균은 3.83점($SD=.65$), 사회성의 평균은 3.99점($SD=.69$), 수줍음의 평균은 2.88점($SD=.70$)으로 모두 중간 이상의 기질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N=255)

Variable	Range	Min~Max	M(SD)	
Temperament	Emotionality	1.00~5.00	1.00~5.00	2.83(.69)
	Activity	1.00~5.00	1.80~5.00	3.83(.65)
	Sociability	1.00~5.00	1.00~5.00	3.99(.69)
	Shyness	1.00~5.00	1.00~5.00	2.88(.70)
Playfulness	Physical spontaneity	1.00~5.00	1.75~5.00	3.52(.84)
	Social spontaneity	1.00~5.00	1.60~5.00	3.36(.74)
	Cognitive spontaneity	1.00~5.00	2.17~5.00	3.11(.65)
	Manifest joy	1.00~5.00	2.20~5.00	3.66(.71)
	Sense of humor	1.00~5.00	1.40~5.00	3.11(1.01)
Social competence	1.00~4.00	1.67~3.96	2.71(.34)	

다음으로 놀이성도 5점 척도로 하위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자발성의 평균은 3.52점($SD=.84$), 사회적 자발성은 3.36점($SD=.74$), 인지적 자발성은 3.11점($SD=.65$), 즐거움의 표현 3.66점($SD=.71$), 유머감각 3.11점($SD=1.01$)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은 2.71점($SD=.34$)으로 평가되어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1.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의 차이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t=2.60, p<.05$)과 유머감각($t=2.96,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Table 3. Distinction among Temperament, Playfulness, Social competence by Child's Sex

(N=255)

Variable	Boys (n=125)	Girls (n=130)	t	
	M(SD)	M(SD)		
Temperament	Emotionality	2.83(.69)	2.82(.68)	.13
	Activity	3.86(.71)	3.80(.59)	.72
	Sociability	3.96(.74)	4.01(.64)	-.58
	Shyness	2.83(.74)	2.93(.67)	-1.11
Playfulness	Physical spontaneity	3.65(.84)	3.38(.82)	2.60*
	Social spontaneity	3.27(.75)	3.44(.73)	-1.89
	Cognitive spontaneity	3.07(.61)	3.15(.69)	-1.04
	Manifest joy	3.68(.71)	3.64(.71)	.50
	Sense of humor	3.30(1.06)	2.93(.93)	2.96**
Social competence	2.69(.36)	2.74(.33)	-1.21	

* $p < .05$, ** $p < .01$

Table 4. Distinction among Temperament, Playfulness, Social Competence by Child's Age

(N=255)

Variable	3 Years old (n=93)	4 Years old (n=86)	5 Years old (n=76)	F	
	M(SD)	M(SD)	M(SD)		
Temperament	Emotionality	2.94(.71)	2.70(.57)	2.83(.76)	2.65
	Activity	3.86(.69)	3.83(.59)	3.78(.67)	.32
	Sociability	4.05(.73)	3.90(.62)	4.01(.71)	1.07
	Shyness	2.88(.71)	2.88(.67)	2.88(.74)	.00
Playfulness	Physical spontaneity	3.36(.76) ^a	3.54(.89) ^{ab}	3.68(.84) ^b	3.09*
	Social spontaneity	3.19(.66) ^a	3.43(.79) ^{ab}	3.48(.75) ^b	3.89*
	Cognitive spontaneity	2.95(.60) ^a	3.24(.66) ^b	3.16(.67) ^{ab}	4.79**
	Manifest joy	3.44(.71) ^a	3.66(.71) ^a	3.92(.62) ^b	10.50***
	Sense of humor	2.83(.80) ^a	3.23(1.04) ^b	3.31(1.14) ^b	5.73**
Social competence	2.61(.28) ^a	2.83(.42) ^b	2.71(.29) ^a	9.38***	

* $p < .05$, ** $p < .01$, *** $p < .001$

Alphabets indicate results of the Scheffé test

자발성에서는 남아($M=3.65, SD=.84$)가 여아($M=3.38, SD=.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머감각에서도 남아($M=3.30, SD=1.06$)가 여아($M=2.93, SD=.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 차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아 연령은 만 3세, 4세, 5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유아 놀이성에서는 신체적 자발성($F=3.09, p<.05$), 사회적 자발성($F=3.89, p<.05$), 인지적 자발성($F=4.79, p<.01$), 즐거움의 표현($F=10.50, p<.001$), 유머감각($F=5.73,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놀이성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자발성에서는 만 5세 유아($M=3.68, SD=.84$)가 만 3세 유아($M=3.36, SD=.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발성에서도 만 5세 유아($M=3.48, SD=.75$)가 만 3세 유아($M=3.19, SD=.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자발성에서는 만 4세 유아($M=3.24, SD=.66$)가 만 3세 유아($M=2.95, SD=.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즐거움의 표현에 있어 만 5세 유아($M=3.92, SD=.62$)가 만 3세 유아($M=3.44, SD=.71$)와 만 4세 유아($M=3.66, SD=.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머감각에 있어서는 만 4세 유아($M=3.23, SD=1.04$)와 만 5세 유아($M=3.31, SD=1.14$)가 만 3세 유아($M=2.83, SD=.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능력에 있어 ($F=9.3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 유아($M=2.83, SD=.42$)가 만 3세 유아($M=2.61, SD=.28$)와 만 5세 유아($M=2.71, SD=.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유아 놀이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회적 능력은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r=.17, p<.05$)과 정적 상관관계를, 수줍음($r=-.1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능력은 유아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r=.52, p<.001$), 사회적 자발성($r=.64, p<.001$), 인지적 자발성($r=.67, p<.001$), 즐거움의 표현($r=.56, p<.001$), 유머감각($r=.50, p<.001$) 모두와 정적 상관

Table 5. Correlations among Sex, Age, Temperament, Playfulness and Social Competence (N=25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Sex ¹⁾	1											
2. Age	-.00	1										
Temperament	3. Emotionality	-.01	-.08	1								
	4. Activity	-.05	.04	.00	1							
	5. Sociability	.04	.01	.12	.58***	1						
	6. Shyness	.07	.02	.06	-.53***	-.54***	1					
	7. Physical spontaneity	-.16**	.11	.00	.29***	.10	-.15*	1				
Playfulness	8. Social spontaneity	.12	.06	-.08	.11	.01	-.02	.55***	1			
	9. Cognitive spontaneity	.07	.04	-.06	.21**	.10	-.10	.54***	.63***	1		
	10. Manifest joy	-.03	.16*	-.02	.26***	.14*	-.15*	.61***	.55***	.64***	1	
	11. Sense of humor	-.18**	.16*	-.03	.20**	.17**	-.27***	.47***	.23***	.55***	.55***	1
	12. Social competence	.08	.07	.03	.17*	.11	-.19**	.52***	.64***	.67***	.56***	.50***

* $p < .05$, ** $p < .01$, *** $p < .001$

¹⁾ Dummy variable(Boys = 0, Girls=1)

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이 높을수록, 수줍음이 적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이 높으며, 즐거움을 잘 표현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날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00~2.61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1.39~1.62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은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I은 가장 먼저 투입된 성별과 연령이 사회적 능력 전체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이며, 모델 II는 모델 I에 유아의 기질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수줍음($\beta=-.18, p<.05$)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유아의 놀이성을 추가한 것으로 사회적 자발성($\beta=.37, p<.001$)과 인지적 자발성($\beta=.26, p<.001$), 유머감각($\beta=.22, p<.001$)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질의 하위 변인인 정서성($\beta=.10, p<.05$)과 수줍음($\beta=-.14, p<.05$)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의 정서성이 높고 수줍음은 낮으며,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 및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1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였더니 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유아의 기질을 추가하였더니 5%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으며, 기질의 하위 변인인 수줍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유아 놀이성을 추가하였더니 53%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으며 기질의 하위 변인인 정서성과 수줍음,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선행연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Table 6. Influences of Sex, Age, Temperament, Playfulness on Social Competence (N=255)

	Social competence					
	Step I		Step II		Step III	
	B	β	B	β	B	β
Sex ¹⁾	.05	.08	.07	.10	.05	.08
Age	.03	.07	.03	.07	.00	.00
Temperament	Emotionality		.03	.06	.05	.10*
	Activity		.06	.11	-.03	-.06
	Sociability		-.03	-.06	-.01	-.02
	Shyness		-.09	-.18*	-.07	-.14*
Playfulness	Physical spontaneity				.03	.07
	Social spontaneity				.17	.37***
	Cognitive spontaneity				.14	.26***
	Cognitive spontaneity				.02	.03
	Sense of humor				.07	.22***
F value	1.32		2.64*		32.10***	
R ²	.01		.06		.59	
R ² change	-		.05		.53	
DW			1.56			

* $p < .05$, *** $p < .001$

¹⁾dummy variable (Boys= 0, Girls=1)

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 기질과 놀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의 차이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질에서 뚜렷한 성차를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들(Cho, 2008; Her & Lee, 2010; Won, 1990)과 같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의 기질 특성을 더 많이 지닌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im & Shin, 2001; Lee, 2011), 남아가 여아보다 새로운 것에 더욱 잘 접근한다는 연구결과(Carey & Mcdevitt, 1978),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성이 더 높다는 연구(Park, 2010)와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이처럼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몇몇 연구의 경우 유아의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는 활동성, 접근성, 적응성 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일관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에서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Woo(2008)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199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지적 자발성에서만 성차가 나타난 연구(Kim & Kim, 2006)와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에서 남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Kim 2002)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Lewis(1972)에 의하면, 놀이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는 요인은 생득적 특성으로 모든 종의 남자는 여자보다 탐색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특성과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역할 행동을 가르치며 유아 스스로 성역할 행동을 학습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남이는 여아보다 더 잘 웃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익살부리기를 잘 하며 농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Kim, 2001)로 유

아를 지도하는 성인들에게 유아의 성에 따라 놀이 행동이 다름을 알고 성별에 따라 적합한 놀이 영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ee(1997), Lieberman(1977), Park과 An(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선행연구(Woo, 2007, 2008)와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다양하게 측정했기 아니라 어린이집 상황에서 또래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측정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 일부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여성인 교사의 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성 고정관념의 결과일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놀이성, 사회적 능력의 차이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ung(1999)과 같은 연구결과로 Bates(1990)가 제시한 기질의 특성 중 하나인 영아기에 나타난 기질은 유전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보이는 특징과 Choi(1991)와 Cho(2002)가 제시한 기질의 선천성, 지속성 및 일관성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등 놀이성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o(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높은 연령의 유아가 낮은 연령의 유아보다 사전 경험이 많고 발달 수준이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 전체는 6세 유아가 5세와 7세 유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은 2세경에 나타나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Berman, 1987), 초등학교 초기에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후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중학교 전반에 걸쳐서 증가한다(Midlarsky & Hannah, 1985)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감소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유아기때 부터 사회적 능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능력은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수줍음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아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이 높을수록, 수줍음이 적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이 높으며, 즐거움을 잘 표현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나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 차원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정서성을 제외한 기질 차원이 사회적 능력의 총점 및 하위 차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한 Chun(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에 부적 상관을 보인 Seo(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능력과 놀이성의 모든 하위 변인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동시에 비추어 봤을 때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능력은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또래와의 놀이와 사회적 능력은 양방향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따라서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을 구분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Kim, 2008).

3.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질의 하위 변인인 정서성과 수줍음,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와 Queenan(2003)의 연구에서 유아기의 정서표현은 유치원에서 또래에 의한 선호도와 협조성 등의 사회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정적 정서의 표현이 빈번한 어머니를 가진 아동이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Liable & Thompson, 1998)를 봤을 때, 부모의 효율적이고 빈번한 정서표현을 통하여 아동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질의 하위 차원인 수줍음이 사회적 능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수줍음이 높을수록 대인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이 낮게 나타난 Doh(1996)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수줍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회적 위축이 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Kagan,

1994)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Gu(2011)와 Lee(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이 놀이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Jeong(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현장 및 가정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놀이를 활용하며, 놀이다운 특성과 성향에 초점을 두고 놀이성을 개발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시에 재원중인 어린이집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을 표집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에 관한 측정을 부모가 평정하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부모의 사고나 편견, 바람들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아의 기질에 관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인터뷰 및 관찰법 측정을 추가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1인의 보고에 의존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보고에 의한 질문지를 통한 측정방법은 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관찰이나 실험연구 등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기질,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놀이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부모상담, 교사교육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아의 기질이나 놀이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놀이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질 높은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FERENCES

- An, R. R., & Kim, H.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mothers' emotional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2), 1-12.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measurement. *Play & Culture*, 3(4), 319-336.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ates, J. E. (1990).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s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A commentary on the Sanson, Prior, and Kyrio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6(2), 193-199.
- Berman, P. W. (1987). Children caring for babies: Age and sex differences in response to infant signals and to the social context. In N. Eisenberg(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 141-164). New York: Wiley.
- Bruner, J. S. (1972). The nature and uses of immaturity. *American Psychology*, 27(8), 687-708.
- Buss, A. H., & Plomin, R. (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Plomin & J. Dunn(Ed.),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Carey, W. B., & McDevitt, S. C. (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3), 245-253.
- Chen, X., Rubin, K. H., & Li, Z. (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31-539.
- Cho, E. O. (2002). A study of children's playfulness and play behavior according to their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uwon.
- Cho, S. H. (2007). A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its influence on the social competence of a child: Analyzing a survey from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 S. O. (2008). The relationships of temperament,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competence to peer acceptance of child.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1, 63-81.
- Choi, M. S. (2007). A study on young children's information processing styles and peer competence relative to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2), 99-118.
- Choi, M. S., & Kim, J. H. (2006). The effect of playfulness on the social skills of young children: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ssociation Child Studies*, 27(4), 103-116.
- Choi, M. S., & Kim, 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2(9), 209-228.
- Choi, Y. H. (1991).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on child'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 Chun, H. Y. (1993).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 19-31.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Dodge, K. A., McClaskey, C. L., & Feldman, E. (1985). Situa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3), 344-353.
- Doh, H. S. (1996). The relationship of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o loneliness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2), 33-45.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Dunn, J., & Munn, P. (1986). Sibling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265-284.
- Eisenberg, N., & Pidada, S., & Liew, J. (2001). The rela-

- tions o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2(6), 1747-1763.
- Gu, G. M. (2011). The relations among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playfulness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Guralnick, M. J. (1990). Peer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handicapped children's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H. C. Foot, M. J. Morgan & R. H. Shute(Eds.), *Children helping children*.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r, M. K., & Lee, S. (2010).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goodness-of-fit on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3), 353-373.
- Hwang, Y. M. (2009).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and their mother's variables on the peer acceptance of th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Jeong, K.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playfulness and social skills of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 Johnson, J. E., Chistie, J. F., & Wardle, F. (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New York: Pearson, Allyn and Bacon.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Basic Books.
- Katz, L. G., & McCellan, D. (1992). The teacher's assessing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RIC document ED 346988.
- Kim, E. J. (2001).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to child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E. K.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playfulness and social ability and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ok University, Seoul.
- Kim, H. K. (2006). The relations among mother's parenting efficiency, children's self-efficien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Kim, H. N., & Lee, K. N.(2008).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by children's sex..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5), 71-92.
- Kim, J. H., & Kim, K. W. (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layfulness and emotional competence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9(1), 91-105.
- Kim, J. H., & Moon, H. J. (2004).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0), 23-38.
- Kim, K.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behaviors, playfulness,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Kim, M. S. (2001). A study on the five-year-old children's playfulness perceived by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Kim, N. Y., & Shin, Y. L. (2001).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reception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Sciences in Education of Yonsei*, 18, 145-161.
- Kim, S. J. (2003). Sequential transition patterns of social play according to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H. (1995). The types of playfulness in Korean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 S. Y.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reative and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H. J. (2011). The effect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ersonality and maternal involvement behavior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H. K. (2010). The relations of children's playfulness and emotional competence to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H., & Moon, H. J. (2008).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1-14.

- Lee, J. S. (2001). Preschool children's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Lee, K. H. (1995).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child care center quality, children's temperament, and family care environment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K. S. (199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of children and their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G. (2010). Relationship among the temperament, social abilities, and solitary play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S. J. (2011). Infants' temperament, attachment and their behavior problems in child 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Lewis, M. (1972). Sex difference in play behavior of the very young.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43(6), 38-39.
- Liable, D. J., &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038-1045.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Midlarsky, E., & Hannah, M. E. (1985). Competence, reticence, and helping by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34-541.
- Noh, S. M. (2004). An analysi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related variables with reference to children's social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H. W. (2012). The pathway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effected by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satisfaction with children's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H. Y. (2010).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mother's parenting,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playfulness b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Park, W. Y., & An, R. R.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5-year-old children's emotional recognition, social competence and peer accepta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1), 285-298.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hee, T. Y. (2000).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developmental program for social competence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Seo, Y. J. (2005).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hyness, maternal involvement behaviors regarding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ung, S. J. (1999). Children's temperamental effect in their mothers' childcaring behaviors, *Educational Research*, 33, 91-119.
- Sutton-Smith, B. (1971). *Play is learning*. N.Y.: Gardener Press Inc.
- Thomas, A., Chess, S., &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lker, S., Berthelsen, D., & Irving, K. (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2), 177-192.
- Won, Y. M. (1990). A study on the relation of child's tempera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to child's adjustment in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Woo, S. K. (2007). The effects of gender,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s and self-control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427-450.
- Woo, S. K. (2008). The effects of gender, temperament,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259-280.

Woo, S. K. (2009).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social competence by number of sibling, sibling sex combination, and birth order.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 367-388.

접수 일 : 2013년 07월 08일

심사 일 : 2013년 08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07일